

# 하는 경이로움에 더한 감성여행의 정점

## ‘돗토리현’을 걷다

이 봄아내는 감성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니 더욱 놀 치기 아쉽다.

돗토리 사구에서 걸어서 10분 남짓한 거리에 자리 하나 찾기도 쉽다. 사구의 형상을 모티브로 모던한 디자인의 미술관은 거대한 흙을 연상시킨다. 관람을 위한 관립로를 따라 거대한 위용의 임체적인 모래조각상이 늘어서는데 자그마한 모래조각을 상상했던 예상이 보기 좋게 빚나가 버린다.

모래조각은 세 번의 놀라움을 전한다. 첫 번째는 크기다. 높이가 7~8m를 기록해 넘기니 작품 전체를 조망하려면 작품 앞에서 뒷걸음질로 몇 번을 나와야 전체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두 번째는 정교함이다.

과연 모래로 만든 것이 분명한지 의심이 들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만큼 조각상에 등장한 인물의 표정까지 그대로 살아 숨 쉬는다. 마지막은 활나의 아름다움이다. 소재가 모래이니 작품에 영원할까란 없다. 작품 전시가 끝나면 원래의 모래 본 모습으로 돌아가고 만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두 번 다시 만나볼 수 없으니 모래조각에서 투영되는 감동의 주파수가 남다른 이유다.

전시품은 매년 주제에 따라 달라지는 점도 매력이다. 올해는 제 13기 전시로 ‘모래로 세계여행–체코&슬로바키아’ 편이 기획 전시중(2022년 1월 3일까지)이다.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역사와 경관, 자연, 전통 등을 테마로 도합 19개 작품이 공개중이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600엔.

### 단풍 가득 다이센산 감동 뒤에 일본 최대급 플라워파크 기다리네

돗토리현 여행에 대자연이 빠지면 섭섭하다. 일본 서부권의 후지산으로 불리우는 명산 ‘다이센산’이 자리하고 가을의 절경과 함께 명품 트레킹 코스를 선보이니 말이다.

다이센산은 해발 1729m로 돛토리현의 명산으로 꼽힌다. 그 모습이 일본이 상징 후지산과 닮아 ‘서일본의 후지’라는 별칭으로도 불리운다.

트레킹을 즐긴다면 다이센산 초입에 자리한 사찰 다이센지 절이 스트트 포인트다. 이곳에서 능선을 타고 트레킹 코스가 이어지는데, 정상부까지 바다를 바라보는 절경이 펼쳐져 연중 트레킹들의 밤길이 끊이지 않는다.

정상까지는 기본 코스로 약 3시간 정도. 코스 자체가 완만하여 트레킹 초심자라도 큰 부담없이 붉은 단풍 용단 가득한 다이센산의 가을 절경을 만끽하며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은 물론, 정상에서 수려한 산

세와 함께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바다 절경이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하니 즐기지 않으면 손해다.

다이센산 인근에 자리한 일본 서부권 최대 플라워파크인 ‘돗토리 하나카이로’도 명물이다.

다이센산을 품고 자리해 수려한 다이센산의 경치를 꽃과 함께 즐길 수 있어 돛토리현 여행의 필수코스로 꼽힌다.

돗토리 하나카이로는 약 80,000m<sup>2</sup>의 면적에 플라워들을 중심으로 4개의 방사형 길을 따라 온실과 전시관, 전망화랑이 갖추어진 초대형 플라워파크로, 특히 1km에 이르는 전망화랑은 지붕이 설치되어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연중 파크를 가득 채운 꽃과 정원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이라이트는 메인 온실인 플라워돔. ‘돔’이라는 단어 그대로 원형의 유리온실 내에 아열대 식물을 포함해 계절을 가늠할 수 없는 다양한 꽃들이 피고, 개방감 가득한 유리천장을 통해 세파란 하늘까지 푸른 햇살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카이로가 워낙 방대한 규모이다보니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즐긴다해도 지칠 수 있다. 그런 이를

을 위해 하나카이로 내 주요 시설을 일주하는 플라워트레인이 운영된다. 하나카이로 전체를 도는 편 약 15분 정도 소요되며, 하나카이로의 수려한 풍경과 함께 다이센산의 위용까지 두 눈에 담을 수 있으니 일부러라도 타볼만하다.

다가오는 겨울시즌(11월 하순~1월 중순)에 맞춘 이벤트도 펼친다. 14,000여개의 조명을 사용하는 ‘문라이트 플라워 가든’이라는 이름의 일루미네이션 이벤트로, 하나카이로 파크 전체에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로맨틱한 야경을 선사하니 대자연 속 특별한 불거리가 된다.

하나카이로가 워낙 방대한 규모이다보니 아무리

- ① 돛토리 사구의 아름다운 풍문
- ② 단풍이 절경에 이른 다이센산
- ③ 미사사온천 전경
- ④ 돛토리 사구 체험으로 인기인 샌드보드
- ⑤ 하나카이로 일루미네이션 이벤트인 ‘문라이트 플라워 가든’
- ⑥ 미사사온천 내 온천료칸 이잔로 이와사키의 노천탕
- ⑦ 순수 모래로 만든 조각작품을 즐길 수 있는 모래미술관
- ⑧ 에스러운 건축물이 가득한 시라카베도조군 아카가와라 거리
- ⑨ 거울 벌미로 손꼽히는 마쓰바가니(대개) 전골

이러한 창고군락이 늘어서 거리를 형성하는데 에스러운 모습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일본 내 ‘국가중요전통적건조물군 보존지구’로도 지정되어 있다. 감성 넘치는 거리이니 산책만큼 좋은 즐길거리가 없다. 과거 창고와 양조장 등으로 쓰여졌던 건물들은 현재는 카페와 갤러리, 체험공방 등의 다양한 형태의 상점으로 운영중이다.

겉모습은 옛 건물이지만 내부에는 커피향이 흐르고 작품들이 전시되고, 감성 체험까지 가득한 점포들이 연이어 자리하니 매장 곳곳이 새로운 발견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옛 감성 넘치는 거리이니 사진을 찍는 곳마다 인생샷 스냅이다. 하얀 회박죽의 창고군락을 배경으로 찍어도 좋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구라요시만의 낙엽기술로 완성한 전통 기모노를 입고 청초한 가득한 사진을 남겨도 좋을 일이다.

돗토리현은 온천에 온천을 어찌 빼놓을 수 있으랴. 오랜 옛날부터 몸을 치유하는 약용온천으로 유명했던 돛토리는 최근까지도 새로운 온천지대가 발견될 만큼 양질의 온천으로 넘쳐나는 온천의 고장이다.

돗토리현 내에 자리한 대표적인 온천만도 10여 개 소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기를 모으는 곳이 세계 굴지의 라돈온천으로 잘 알려진 ‘미사사온천’(三朝温泉)이다.

미사사온천은 라돈이라는 라듐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약한 자연 방사능이 입욕을 통해 몸에 흡수되며 신진대사를 활발화하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자연치유력을 높여주는 탁월한 효험의 온천.

때문에 “미사사온천에서 아침을 세 번 맞이하면 만병이 치유되는”는 말이 전해질 정도. 진정한 치유를 찾는 온천마니아라면 돛토리현 여행에 필히 찾어야 할 이유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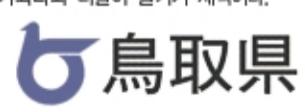


서일본 최대 규모 플라워파크인 하나카이로

### Information

돗토리현까지는 인천공항–오늘고 공항 간 정기편이 운행하였으나 현재 코로나 사태로 휴항중이다. 돛토리 사구와 모래미술관은 돛토리사에 자리하여 JR 돛토리역을 기점으로 자동차로 약 20분 대 거리에 자리한다. 돛토리 하나카이로는 JR요나고역에서 무료 세틀버스가 운행면도 25분 소요해 편리하다. 입장료는 겨울시즌 성인 기준 500엔. 시라카베도조군 아카가와리까지는 JR 구리요시역 2번 정류장에서 노선버스가 상시 운행중이다. 소요시간은 약 15분 전후. 미사사온천도 JR구리요시역에서 가깝다. 미사사온천 버스로 20분 정도도 탈을 수 있어 시라카베도조군 아카가와리와 더불어 즐기기 제격이다.

돗토리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여행정보는 돛토리현 관광 공식 사이트([www.tottori-tour.jp/koi/](http://www.tottori-tour.jp/koi/)) 및 돛토리현 공식 블로그([blog.naver.com/tottori\\_prel/](http://blog.naver.com/tottori_prel/))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료칸들은 온천마을 중심을 가로지르는 미토쿠강을 따라 20여 곳이 늘어선다.

온천마을로서의 풍류도 제격이다. 미사사다리를 중심으로 하류에 가지카하시 다리, 상류에는 고이타니바시 다리 등, 제각각 다른 정취를 풍기는 다리가 미토쿠강을 따라 늘어서는데, 온천료칸의 유카타를 입고 다리에 올라 온천마을의 초저녁 풍경을 바라보면 어느 일본 영화에서 봤을 법한 감성에 빠져 헤어 나오기 어려울 정도다.

미사사다리 아래로 자리한 가와라 노천탕도 명물이다. 24시간 누구라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작

고 소박한 온천탕이니 일본온천 마니아를 자처한다면 남들 눈치 볼 것 없이 육십내 즐겨볼만하다.

온천료칸에서 돛토리현의 특별한 미각을 즐기는 즐거움도 기다린다. 돛토리현은 거울처럼 미각의 왕으로 불리우는 마쓰바가니(대개)의 산지. 11월부터 수확이 시작되며 일본 전국의 미식가들을 돛토리현으로 불러들인다.

마쓰바가니를 그대로 찌어 먹는 짐을 비롯해 샤브샤브나 전골 스타일의 나베로 즐기는 등, 다양한 요리를 료칸이나 전문점에서 맛볼 수 있으니 이 계절 기억해둘 포인트다.